

## 허물어진 환상(幻像)

혁구 씨는 언제나 구석 자리에 혼자 와 가만히 앉았다. 그 자리 옆엔 벽을 도려낸 장식대(裝飾臺)가 있어 꽃을 꽂은 화병이 놓이고, 낮에도 램프 불이 숨을 모으듯이 흐릿히 켜져 있을 때가 많았다.

컴컴한 구석에 있다 하나 낮에 켜진 등불이란 빛부터가 병적이다. 이 앓는 듯한 불빛을 정면으로 받은 혁구 씨의 선이 뚜렷한 얼굴은 마치 조각과 같이 단정하고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간간이 레지에게 시간을 묻곤 하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하였으나 언제나 그렇게 앉았다간 가는 것을 보면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닌 성싶었다. 꽃꽂하게 줄을 세운 바지, 주름살 하나 없이 다린 넓은 상의를 말쑥하게 입은 혁구 씨는 어딘지 좀 초라해 보인다. 무릎이 뚱그런 수세미 같은 양복에 바바리를 걸친 모습이 껍이나 씩씩하고 당당하게 보인 그였는데…… 정성껏 닦은 듯한 구두 가죽이 갈라진 틈마다 구두약이 끼어 있는 것도 서글프고 초라한 인상을 주고, 챙이 좁은 검은 소프트도 쓰지 않았으면 싶었다.

호리호리한 체구를 갖고 팔을 조금도 흔들지 않는 걸음걸이는 예전과 같았으나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찡는 버릇이 없어진 까닭인지

나이간으로는 주름이 없었다.

무엇을 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지 언제나 우두커니 앉아 수동적(受動的)으로 눈앞에 오는 모든 것을 그 힘없는 눈에 흐릿하게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에선 짐작할 수 없었으나, 낡은 의복이나마 그토록 정성껏 손질해 입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감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생활 태도였다.

그토록 싫어하던 네 살이나 손위인 아내와 개천 위에 지은 판자 방에서 사남매를 거느리고 사는데, 세 살 난 끝의 아이는 피난온 이듬해 전재민 수용소에서 낳았다고, 어느 친구가 딱한 듯이 일러준 일이 있다.

“부인의 나이가 열만 줄 알우? 자그만치 마흔여섯이라우.”

오십이 가까운 아내에게 임신을 시킨 사나이——그러나 영희에게는 불결하다기보다 가련한 생각이 더 컸다.

그녀가 혁구 씨를 처음 본 것은 열 살 때 봄이었다.

지방 관리로 돌아다니는 혁구 씨네와 금융 기관의 지점장으로 떠돌아다니던 영희네가 ××군에 부임해 간 것이 우연히 한날이었고, 같은 서울 태생인데다가 따지고 보니 영희네 외가측으로 사돈이 되어 양가는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그야말로 한술밥을 먹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두 집 사택이 대문을 나란히 한 까닭도 있었지만, 그 때만 하더라도 내외가 심할 때라 사이담에 문을 달고 아낙들까지 한집같이 오고 가고 하였다.

혁구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얼송얼송 손티가 있는 얼굴이 무척 호인드웠으나, 며느리보다도 잣 젊어 보이는 그 어머니는 아리잠직하고 매몰진 부인이었다.

무척 지체가 높은 집안이라고 영희네 할머니가 그것 까닭에 대접을 했던 생각이 난다.

혁구 씨는 그 집안의 독자였다. ‘촌충이’ 같이 길기만 해——하고 그 사람 좋은 아버지가 애정 표시를 그렇게 하곤 하던 은구라는

명청하게 생긴 누이에 비해 이목이 수려한 청년인 혁구 씨에겐 뒷박 이마에 주먹코를 가진 그의 아내가 어린 영희의 눈에도 걸맞지 않았다.

×× 고보(高普)에 다닌다는 혁구 씨는 집 앞 못에 연꽃이 필 때가 되어도 집에서 그저 구르고 있었다.

그러던 해의 여름이었다. 참새들이 너무나 요란스럽게 재재거려서 뜰 밖을 내다보니 석류나무에 큰 구렁이가 걸려 있는 것이었다.

모두들 법석을 하는데 혁구 씨가 장대 끝에 헌 숨을 감고 그것을 석유에 잠갔다가 구렁이의 몸을 마구 문질렀다.

구렁이는 목을 쳐들고 몸을 꼬다가 그만 털썩 떨어져 버렸다.

징그러워 외면들을 하는데, 혁구 씨는 꿈틀거리는 구렁이에게 더욱 석유를 뿌리는 것이었다. 뱀이란 요사스런 무서운 짐승인데 하고 눈썹을 모으는 어머니에게 그 때 혁구 씨가 한 말, 그 단호하고도 격렬한 말, 영희의 어린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말을 그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악에 대하여 관용(寬容)한 것은 죄악입니다. 어머니! 구렁이는 악의 상징이에요.”

그러던 혁구 씨는 당시의 민족 운동자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열렬한 크리스천이기도 하였다.

누대 봉사의 명문에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지 않으려는 종손(宗孫), 또 일정의 관리인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혁구 씨는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그 양친에게 주었던 것인가?

연꽃이 필 때까지 학교엘 나가지 못하던 이유를 영희가 안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고, 학생 운동으로 고명한 그 학교의 최초의 동맹 휴교의 주모(主謀) 지도자로서의 혁구 씨를 제멋대로 채색하게 된 것은 소녀의 감상(感傷)을 알고부터였다.

언제나 고등 경찰의 형사의 미행이 붙는 신비스럽고 용감하고 위대한 혁명가—— 그가 많지 않은 일정시의 한국인 고등관(일정의 은

총을 입는다고 할 수 있는)의 독자요, 부유한 가정의 자제인 만큼 더욱 순수하고 고매한 정신을 가진 것같이 영희에겐 보였다.

혁구 씨는 그 아버지의 고초와 침식을 잃은 알선 끝에 XX 고보를 간신히 마치고 동경으로 건너가 어느 사립 대학에 적을 두었으나 수석이 못 가서 행적을 감추었던 것이다.

영희는 지금도 역력히 당시를 상기할 수 있다.

혁구 씨네 집 그 육중한 대문은 언제나 굳게 닫힌 채였고, 객이 올 적마다 하인이 여닫는 그 대문은 몹시 빠걱거렸다. 영희가 곰보 아저씨라고 따르던 혁구 씨의 아버지는 주량이 부쩍 늘어 취기가 돌면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로야 가지 마라…….

——청강에 고이 씻은…….

하고 가락이 늘어진 시조를 읊곤 하였다. 아버지로서의 그는 외아들이 끔찍한 그런 일의 주모자라는 것이 수궁되지 않았는지, 비유적인 이 한 수의 고시조로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는 모양이었다. 일정의 녹을 먹고 있던 타협적인 그에겐 아들과는 상극되는 그로서의 인생관이 있었던 것일는지도 모른다.

안방에서는 검은 띠로 머리를 동인 혁구 어머니가 보료 위에 앉았다 누웠다 하고, 뒷박 이마 머느리는 마루에서 진분홍 치마에 행주치마를 눌러 입고 시름없이 화로에 얹힌 약탕관을 지키고 있었다.

혁구 씨의 행방이 밝혀지기 전에 (외국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기는 하였으나) 영희네는 서울로 올라갔으나, 양가가 격조해져도 이혁구라는 인물은 다감한 소녀의 가슴속 깊이 접혀 고이 간직되었다.

그 상스럽지 않은 상봉 후 십여 년 만에 부산 거리의 혼잡 속에서 그러한 혁구 씨를 만났을 때도 영희는 그리 놀라움을 가지지 않았다. 혁구 씨가 살아 있다는 것부터가 기적적인 일이었고 또 살아서 조국의 광복을 본 이상 현재와는 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할 인물로 믿어 온 것이었으나, 그녀는 혁구 씨에 관한 한 전혀 비판을 가질 수

가 없었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든 그리 기이한 감을 가지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위험하고 진지한 투쟁 끝에 온 것이 겨우 현재의 그의 상태라는 기막힌 사실도 이즘 세대로서는 있음직한 일이라 거기서 ‘희생’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를 켈 수도 있는 일이었고, 그의 방심적(放心的)인 태도를 공손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의 지나치게 겸허한 태도 단정한 것이 서글픔으로 통하는 몸차림을 고삽(苦澁)을 겪은 완성된 범용(凡庸)으로 보려던 영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혁명가 이혁구라는 사람의 경력에 이러한 것을 미리 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혁명가에겐 투쟁 중의 장렬한 죽음이 아니면, 성공 후의 완성된 원만 이외의 것은 허락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온 영희였다.

혁구 씨의 동창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몇 있어 그들이 혁구 씨를 위하여 판잣집을 지어 주었다는 말이 있었으나, 실상은 그 돈은 집으로 가지고 가는 도중에 소매치기당하고 부인이 혼수 바느질을 맡은 집에서 차용한 것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너무 고문을 심히 받아 아주 천치가 됐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영희는 언제인가 남포동 거리에서 담배뿔기를 녀을 잃고 구경하고 있는 그를 본 일이 있다. 그 유치하고 우스운 장난 놀이가 그렇게도 신기스러웠는지 언제나 흐릿하고 산만한 그 시선이 문자판(文字盤)에 가 영긴 것이, 머리에 흰 것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인 만큼 좀 안됐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혁구 씨는 그 아버지를 택해 필재가 있었다. 영희가 경영하고 있는 다방의 벽에 붙은 달필의 메뉴라든가 광고 같은 것은 그의 손으로 씌어진 것이 태반이었고, 거기 출입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장난 삼아 보고문이라든가 안내장 같은 것을 써 달라면 아이처럼 긴장하여 붓을

들곤 하였다.

그는 누구에든 무엇이건 거절을 못 하는 모양이었다.

상이 군인이 연필이나 신문을 팔러 올 때 같을 때, 절대로 거절을 못 하는 심약(心弱)이 그에게 다방 출입을 제한시키는 듯도 싶었다.

그의 눈이 본다느니보다 눈앞에 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반영시킬 따름이란 느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의지를 갖지 않고 남의 의지에 끌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벽에 꽂힌 라일락이 혼탁한 실내의 공기에 얼려 무거운 향기를 뿜는 이른 여름의 어느 날, 혁구 씨는 화가 A씨의 청으로 수일 후에 그들이 가지려는 어느 모임의 초청장 겉봉을 열심히 쓰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유리알이나처럼 생채없이 번득거리기만 하던 그의 눈에 등불을 켜 모양이다. 단정하게 앉아 운필(運筆)에만 전념하는 모습에는 어딘지 성자에 통하는 어리석음이 엿보였다.

육칠 명의 남학생들이 몰려들어왔다. 바깥은 비가 내리는 모양으로 짙은 체취(體臭)가 스민 감색 제복이 축축이 젖고 기르기 시작한 머리털에 맺은 빗방울이 이슬같이 신선하다.

들어올 적부터 흥분해 보이던 그들은 창 옆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격렬한 어조로 토론다운 것을 하고 있었다.

전축에서 흘러 나오는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 좀 시끄럽게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 것도 그들의 높은 말다툼 까닭인 모양이었다. 무엇을 떠들고들 있는지 모를 일이었으나 음악이 딱 그칠 적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같이 또렷해지는 말 가운데 '단호코 처단'이라는등 '결사 투쟁'이라는등 하는 격렬한 어구가 섞였다.

청춘의 어찌할 수 없는 과잉(過剩)이 그들의 뺨을 홍조(紅潮)시키고 이상(理想)에의 숨결을 가쁘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방의 손들 중에는 이 어수선한 무리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는 사람도 있었으나 또 젊은 사람들의 흥분을 약간 흥미로운 눈초

리로 썩보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 일에 열중하던 혁구 씨도 너무나 높고 뚜렷한 ‘결사 투쟁’이란 말이 들렸을 때에는 의아한 듯이 눈을 들었다. 그러나 다시 울리기 시작한 음악이 그 젊은 음성을 지워 버리자 한숨을 쉬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그는 그 말을 자기 내부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아닐까?

군데군데 남뿔불이 놓인 어두운 방, 자욱한 담배 연기, 홍조된 흥분에 찌그러진 얼굴들, 격렬한 언사—— 이러한 것들이 색인(索引)이 되어 영희의 추억의 문이 열려 갔다.

중일 전쟁이 날로 치열해 가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옥동에서 아담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영희를 어느 낯 모르는 소년이 찾아왔다.

자기는 이번에 영희의 이모네 행랑채에 살게 된 사람의 아들이라 하며 쪽지를 한 장 내놓았다. 쪽지에는 달필의 궁체로 “금제품인 광목을 친구가 좀 구해 와서 여럿이들 나누려는데 한몫 낄 의향이 있으면 이 아이를 따라오라.”고 적혀 있었다. 필수품의 통제 때문에 버선 한 켤레가 아쉬울 때였고, 또 그 필적의 진부를 의심한다던가 하는 일은 국내에서 포근히 곱게 자란 그녀로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었다. 이모와 서신 왕래를 한 적이 그리 없어 그의 필적을 상세히 기억 못 했던 까닭도 있었지만.

영희는 재빠르게 몸 차림을 하고 그 소년을 따라 나섰다.

앞서가는 소년은 말수가 없는 아이인 듯 이것저것 묻는 말에 그저 “네.”

“모르겠어요.”

하는 정도의 대꾸를 할 뿐이었으나 광화문에서 전차를 내리자 여기서부터는 걷는 쪽이 낫다고 하며 걸음을 빨리 했다.

소년이 안내한 집은 종로 뒷골목 어느 대장간 집이었다.

“안에 살림채가 있어요.”

소년은 영희의 얼굴에 어린 약간의 망설임을 재빨리 읽고 이렇게 말을 하며 마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영희는 자기 뒤에서 대문의 빗장이 질러지는 소리를 듣자 본능적인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점점 커져 가는 불안을 설마하는 마음으로 누르며 따라 올라간 방은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넓은 삼 간 가랑 되는 장판 방이었다.

“아주머니들은?”

“옆집에 계신 모양이에요. 여쭙 을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소년이 나간 후 되바꿈으로 어느 남자가 들어왔다.

후리후리한 키 넓은 이마 쏘는 듯한 눈을 가진 그는 들어오며 공포에 웅조라진 영희를 보고 씩긋이 웃었다. 하얀 덧니가 드러나는 그 애교 있는 웃음에 기억이 있었다.

“알겠소? 나, 혁구—— 참 오랜만이에요.”

“앗!”

영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려는 복잡한 부르짖음을 손으로 끄며

“웬일이세요, 오빠.”

하는 소리가 떨렸다.

혁구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으며 윗목에 놓인 재떨이를 잡아당겨 께련에 불을 댕기고 정다운 어조로,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오니 누이가 보구 싶어서.”

한다. 혁구의 자당이 작고한 후 어느 젊은 과부에게 빠져 지낸다는 곰보 아저씨의 행상을 아는 영희는 혁구 씨의 처지가 가여웠다.

“은구 언니 만나 보셨어요?”

“아, 갠 함흥 산대지, 멀어서 온.”

혁구가 재를 떨며 중얼거렸다.



애써 찾아간댔자 은구의 남편이 이 말썽꾸러기 처남을 환영할 리 없을 것은 두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혁구는 재떨이에다 담배를 부벼 끄고는,  
“참 상스럽지 않게 불러내어 미안하오. 그렇게나 하지 않고선 만날 도리가 있어야지.”

하고 왼쪽 볼에 주름을 잡는다.

“참말이지 빗장지르는 소릴 듣군 섬찍했어요. 우리 집으루 오셔두 무관허신 걸 뤼.”

혁구는 닷하는 듯이 응석조로 말하는 영희에게 대꾸가 없다가

“어부인께선 여전허시군.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허허…….”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또 침묵이 흘렀다. 혁구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모양으로 다시 피워 문 담배를 말없이 빨다가 자세를 고치며,

“누이, 오랜만에 돌아온 오빠에게 선물을 하나 줄 생각 없소?”  
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빈약한 광선 속에서 억지로 꾸민 미소로 일그러진 그 얼굴에는 무서운 긴장과 기대가 얼어붙어 있었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도사리며,  
“……?”

크게 뜬 눈으로 다음을 재촉했다.

파선(破船)을 시키는 폭풍도 바람이요, 돛단배를 순조히 밀어 가는 순풍도 역시 같은 바람이다. 인간 역시 같은 것으로, 바람 같은 것일 거라고 영희는 생각해 본다.

영희의 남편은 제대 출신 고문 합격이란 최고의 세속적 영예를 지닌 앞날이 넓게 트인 사법관이였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으나 영희는 남편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담한 집을 꾸미고 남편의 수발을 들고 남편의 성공을 꿈꾸고——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방대한 조서(調書)를 밤 늦게까지 뒤적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차량과자랑 얻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권하며 그의 논고문(論告文)의 청서도 하였고, 또 판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남편인 검사의 구형대로 내려지지 않을 때에는 무척 안타까워도 하였다. 그것이 사상범에 대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혁구에 대한 경건한 이미지는 그대로 깨어지지 않은 채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종로 대장간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자 영희는 오한이 났다.

그녀는 극도로 혼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과 혁구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였다.

비밀실에서의 그들의 밀회와 그 중대성, 범복을 입은 남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물’을 강요(명령이라는 것이 타당할)하던 혁구…….

이런 것들이 주마등같이 머리속을 달렸다.

그녀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져 버렸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일면으로는 숭고한 희생적인 행위가 타면으로는 반역죄라는 끔찍한 이름을 갖게 되는가? 왜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가? 남편은 허구많은 직업 속에서 왜 하필이면 사법관으로서 침략자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자각은 남편에게 대한 화살이었다.

그러나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좀먹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여전히 자신의 일에 정력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최악에의 협력이라기보다 진지한 학구에 가까운 태도였다. 진실로 ‘가책’이란 ‘죄’의 자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므로, 남편에겐 가책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혁구가 조른 ‘선물’이란 그의 부하의 한 사람의 실책으로 분실된 중요 연락 서류인데, 그것만 찾게 되면 희생자가 대폭으로 축소될 것

이라는 것이었다.

영희를 불러낸 것은 그녀의 애국적 양심을 확신하는 견지에서 그 사건의 담당 검사인 남편의 서류 속에서 그것을 빼내는 대역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도 가급적으로 조속히! 되도록이면 오늘 밤 안으로!

지금 생각하면 혁구는 훌륭한 심리학자였다. 며칠만 지났더라도, 그의 최면술(催眠術)은 그토록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영희에겐 오한에 떠는 자기 옆에 그날 밤따라 남편의 존재가 유달리 신경질적으로 느껴졌던 것만이 남아 있을 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완전히 기억에서 떨어져 버리고 있었다.

이튿날 오후 “신문 왔어요. 매일신보——.” 하고 신문 배달의 소년이 뜰안으로 들어왔다. 약속한 시간이 온 것이었다.

일부터 심부름을 보낸 식모는 아직 돌아올 리 없어, 인기척 없는 방에 들은 마주 섰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내놓으세요.”

소년이 입을 열었다.

“.....”

“빨리 가지구 오라시던데요.”

소년의 말이 책망조로 나온다. 영희는 아찔 현기를 느꼈다. 추호만큼도 감정이 없는 얼음 같은 전갈—— 그들은 영희가 지난 하룻밤을 어떻게 새었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영희는 다시 혼란해 가는 정신 속에서 남의 음성같이 갈라진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었다.

“가서 엿저녁에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더라고 전해라.”

소년이 사라진 후,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허리춤에 넣었던 그 서류를 꺼내어 성냥을 그어 대었다.

사흘 후 영희는 칠 개월 되는 태아를 사산하였다.

“떠들어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카운터에 학생들이 와 서 있다. 리더 격인 듯한 까무잡잡한 학생이 차 값을 치르며 새하얀 이를 드러낸다.

“천만에, 어느 학교죠?”

“XX 고등 학교.”

“아, 학생 운동으로 유명한…….”

학생들은 다방 마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펍 반가웠던 모양으로  
“네, 5월 3일은 그 기념일입니다. 최초의 동맹 휴교가 바로 27년 전 오늘 일어났지요.”

그 회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흥분이 가시지 않아 떠들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혁구 씨는 여전히 차근차근 붓을 놀리고 있다.

5월 3일 — 최초의 학생 운동 — 그 최고 지도자…….

“팜플렛이 있습니다. 봐어 드릴까요?”

학생들이 순진한 웃음을 띄우며 말한다.

“네.”

“이것.”

열 페이지 가량되는 4·6 판의 그 팜플렛에는, 개축 전의 교사 사진과 신축 후의 그것이 있는 다음, 역대 조선인 교사의 사진 — 이윅고 “우리의 위대한 대선배 이 혁구 선생”의 명함판 사진이 빼젓하게 게재되어 있었다.

“이분이 최초의 지도자시군요.”

“네 청사(靑史)에 남을 분입니다.”

청소년답게 서슴지 않고 단언하고 팜플렛을 받아 가진 후 학생들은 들어올 때와 같이 왁자지껄하며 때를 지어 나갔다.

청사에 남을 분 — 영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혁구 씨 옆으로 가까이 갔다. 오늘만큼은 진실로 오늘만큼은 그를 놀림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까짓것 고만 두시고 하이볼이나 하나 드셔요.”

혁구 씨는 약간 상기된 얼굴을 들고 이마 너머로 영희를 건너다본다.

“오늘이 5월 3일이라는군요.”

“호——.”

혁구 씨는 가볍게 대꾸를 하고 또 붓을 움직였다.

영희는 후—— 한숨을 내어 뿔었다.

그 중요 서류의 분실이 빚어 낸 소동—— 남편의 수난, 구금, 질병, 석방—— 꿈같은 일이었다.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남편에게 씌워진 “애국자”의 광영도, 영희의 가책을 덜지는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혁구 씨에게 그것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희 자신이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무서운 고초와 위협—— 그 한 가지가 남편에 대한 속죄라기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다소의 위안이 되었다. 동시에 뜻하지 않았던 사건의 낙착에 놀랐을 혁구에게 대한 영희의 침묵은 자학적(自虐的)이기는 하나 일종의 복수심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영희의 남편은 해방 후 삼년 만에 급성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으나 긴 회오는 깊은 상처같이 가슴에 남았다. 하이볼이 왔다. 영희의 권에 컵을 들기는 하였으나 혁구 씨는 한 모금 마셨을 뿐, 또 걸봉을 써 간다.

남이 시킨다고 천진 난만하게 그것에만 골똘하는 폐인이 된 혁명가—— 그는 ‘고문을 너무 받아 천치가 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잃어버린 자기 존재에 걸려 넘어진 것 같았다.

한숨에 들이켠 하이볼이 뜨겁게 전신의 혈관을 달리는 것을 깨달으며 영희는 아프도록 이 폐인에게 가까움을 느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정신이 허물어진 사람이었고, 그 허물어진 일각에서 맺어진 사이였기에…….

“5월 3일을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혁구 씨는 여전히 사회(死灰)와 같은 손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만 했다. 그에게는 절망에 필요할 만한 정열조차 없는 듯하였다.

(1953. 5. 5.)